

## 로만 야콥슨의 번역이론과 영상번역: 우리말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류 현 주  
(부산외대)

번역학자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은 20세기 번역학의 가장 중요한 발전의 계기로 1920년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과 이후 프라하 학파에 그 공을 돌리고 있다(15).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러시아 형식주의를 대표하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학자로서 서사학, 언어학은 물론 번역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지 스타이너(George Steiner)의 평가를 보면 현대 번역학의 출발은 야콥슨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스타이너는 야콥슨 이전의 번역학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이론적 차이점들을 동일하게 계속 재탕하는 것("a continual rehashing")으로 파악한 바 있다(51). 물론 이는 정식으로 번역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 정립되기 전의 일이었다. 이때의 번역학이란 언어학이나 기호학의 틀과 도구를 활용한 번역물의 이론적 해석에 그친 정도였으므로 번역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 스타이너 자신도 동일한 언어들 사이의, 또한 상이한 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번역

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49). 이것이 인간 소통 해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편적 번역 개념이라면 번역학의 그것은 두 언어 사이 혹은 두 언어들의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제한적 개념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이론 틀로서 야콥슨을 택한 것은 번역학에서 사용하는 언어 기호의 제한적 한계를 좀 더 극복하는 번역 비평의 관점에서 비 언어기호까지 포함하는 영상 번역을 중심으로 포괄적 의미의 번역 정의를 적용함으로써 번역학의 외연을 조금이나마 확대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 로만 야콥슨의 번역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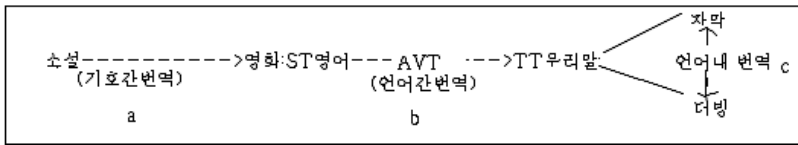
야콥슨에게 언어의 의미란 곧 기호학적 사실이며 어떤 언어적 기호의 의미는 결국 또 다른 대안 기호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다(232). 그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번역을 정의하면서 사실 “해석”(interpretation)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야콥슨의 이론에 의하면 번역은 대안기호인 것이다. 그 대안 기호 해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번역으로 나뉜다(233).

- 1) 언어내(intralinguistic) 번역: 동일 언어 내에서 언어 기호(verbal sign)를 다른 기호로 해석(rewording)
- 2) 언어간(interlinguistic) 번역: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해석(translation proper)
- 3) 기호간(intersemiotic) 번역: 비언어적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언어 기호를 해석(transmutation)

이 중 영어 풀이가 말해 주듯 실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번역학에서의 번역은 두 번째 개념이다. 첫 번째 개념의 번역은 사실 두 번째 개념에 이미 내재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언어 전문직 서비스로서 번역은 원래 번역물 수용자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본질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기드온 투어리(Giddon Toury)가 번역의 종류를 기호내(intersemiotic) 번역과 기호간 번역, 두 가지로 나누면서 야콥슨의 언어내 번역과 언어간 번역을 기호내 번역 하나로 압축(Baker, 220)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생각된다.

고대 영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현대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현대 영어로 다시 쓰거나 비영어권 학습자를 위해 소설 원본의 영어를 조금 더 쉬운 표현과 문법으로 바꾸는 것은 곧 첫 번째 개념의 다시쓰기이다. 시대를 초월한 문학 고전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아동 문학은 이러한 종류의 다시쓰기가 적용되는 대표적 예이다. 찰스 램과 메리 램(Charles & Mary Lamb)이 들려주는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16세기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것이 아니라 현대 영어로 아동 및 청소년층 독자를 배려하여 조금 더 쉽게 바꾸어 쓴 *Tales of Shakespeare*(1807)이다. 아동 문학 번역의 경우, 성인 문학 번역과 비교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용자(독자)층을 고려하여 아동들에게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통해 원전 독자와 상응하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연구가 많이 되었던 분야이다.

한편 영상번역은 소설을 토대로 각색되거나 혹은 글로 쓰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체를 달리하여 해석된 세 번째 종류의 번역에 해당된다. 기호간 번역은 언어 기호를 음악, 무용, 영화 혹은 그림 등의 기호로 처리해 다른 예술 장르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매체의 영상 서사물은 다른 언어로 자막 처리되면 언어간 번역 개념이 되고 수용자(관객 또는 시청자)의 편의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더빙으로 처리된다면 언어내 번역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비평 텍스트로 영상번역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영상번역이 로만 야콥슨의 세 가지 번역 종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해리포터 시리즈 소설 원작은 실제 사용된 어휘와 문법의 수준을 보면 아동이 읽기에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우선 텍스트가 영상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기호간 번역(아래 그림a)이 이루어진 것이고 동시에 소설 서사의 서술이 구어체 대화로 바뀌면서 아동들에게 더욱 쉽게 이해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언어내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상물을 ST로 더빙과 자막을 TT로, 두 언어 텍스트의 관계를 비교하는 언어간 번역(b)으로서의 영상 번역에서 더빙과 자막의 상호 텍스트성을 다루는 언어내 번역 측면(c)도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영상번역

인쇄물 문자 매체와 달리 내용이 화면(screen)에 담긴다고 하여 영상번역은 screen transl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화면에 담긴 영상물의 번역이란 뜻으로 film translation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의 film은 영화의 다른 명칭이기도 하나 TV영상물을 뜻하기도 하므로 모든 영상번역을 지칭한다. 그러나 좀 더 매체의 특성을 강조할 때, 영상 서사는 주인공들의 대화, 나레이터의 서술, 그리고 효과 음향을 포함하는 청각적(audio) 요소와 영상이라는 화면 매체와 그 안에 담긴 이미지 등의 시각적(visual) 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영상번역은 구체적으로 AVT(Audiovisual Translation)로 옮겨야 할 것이다.

언어 기호를 비언어 기호로 바꾸는 기호간 번역에서 영화는 그림, 무용과 같은 비언어 기호에 비해 그 안에 언어 기호를 다시 포함한다는 차이와 특성이 있다. 기호간 번역으로서 AVT에는 두 층위가 있다. 영상물을 즐길 때 수용자는 귀로 대사와 음향을 들으면서 동시에 이미지는 물론 영상의 측면 혹은 하단에서 글자를 읽기 때문에 영상 번역은 두 개의 매체 혹은 두개의 매개적 특성을 가진다. 이는 특히 자막 혹은 캡션(caption)에서 두드러진다. 고트레브(Gottlieb 247)는 야콥슨의 번역 개념을 따라 자막을 ‘수직적 번역’(언어내 번역)과 ‘대각선 번역’(언어간 번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도착어가 출발어와 동일한 것이고 후자는 다른 것이다. 이 때 수직적 번역으로서의 자막은 캡션을 가리킨다. AVT의 자막은 언어간 번역이지만 동일언어의 캡션 기능은 언어내 번역이다. 동일한 언어로 음성을 문자로 전환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캡션 기능은 학자들에 따라서 자막의 범주에 넣기도 하고(Shuttleworth & Cowie 161) 혹은 둘을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Karamitroglou 5) 소리를 문자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캡션을 일종의 자막으로 볼 수 있다면 자막은 언어내 번역이 되기도

한다.

그 동안 영상 번역은 주로 자막을 중심으로, 영화 자막 번역의 제약적 특성, 번역 오류, 시각적 이미지와 문자 텍스트의 상관관계 등이 연구되어 왔다. AVT 차원에서 자막 분석은 주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ST로, 자막을 TT로 하여 상호 비교(Audio<-->Video)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상대적으로 언어기호인 대사 대 더빙(Audio<-->Audio)에 대한 상호텍스트성은 많이 연구되지 못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텍스트들의 더빙과 자막 모두를 포함하여 야콥슨의 이론을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상호 비교 텍스트는 영상번역의 ST-TT 비교 이전에 두 가지 논점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더빙의 목적이 번역물 수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막에 대한 언어내 번역(앞 그림 c)으로 간주하여 TL 우리말을 살펴보고, 둘째는 언어간 번역으로서 영한 자막 번역(b)에 나타난 외국어 남용의 실태를 통해 우리말 사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더빙 분석

자막이 시각적 보충 과정이라면 더빙은 청각적 교체 과정이다(O,Connell, 66).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유명한 배우들이 담당하는 것은 이미 상업적 성공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관객들에게는 해당 주인공들이 영화에서 연기할 때 상대 목소리 주인공 배우의 이미지가 같이 연상되어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한다. 예를 들어, <개미 Antz>의 샤론스톤(Sharon Stone)이나 <슈렉 Shrek>의 카메론 디아즈(Cameron Diaz)가 그러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영화더빙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주인공뿐 아니라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처음에는 <니모를 찾아서 Finding Nemo>나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Harry Potter: the Sorcerer's Stone>에서와 같이 아동을 주 관객 대상으로 삼은 영화에서 좀더 친밀감을 주기 위해 전문 성우나 연예인이 아닌 실제 어린이가 더빙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관객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 한 때 케이블 방송에 비해 외화를 성우들의 더빙판으로 방영하는 공중파 방송 중 KBS에서 외화 성우 더빙을 없

애고 대신 우리말 자막 처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으나 성우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더빙으로 영화가 계속 방송되고 있고,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해 케이블 채널 OCN 인터넷 게시판에는 더빙 방송이 오히려 영화 이해에 방해가 되므로 자막 방송을 선호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킨다는 더빙에 대한 비선호적 반응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외화 수입 배급사나 방송권 관계자들은 영화의 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읽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더빙이 덜어 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관객이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더빙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에 수입 상영된 <빨간모자의 진실 Hoodwinked!>은 이전의 다른 수입 애니메이션 영화와 비교하여 훨씬 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목소리 더빙에 참여시켜 흥행 전략을 세웠다. 영화 홍보 포스터를 보면, 원문과 달리 유명 연예인들(밀줄부분)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T1: Red Riding Hood, The Woodsman, Granny, The Wolf. Not Your  
Typical Crime. Not Your Usual Suspects.

TT1: 4명의 톱스타, 4개의 스토리

원 포스터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 네 명이 등장하지만 번역본에는 연예인 김수미, 강혜정, 노홍철, 임하룡을 지칭하는 ‘4명의 톱스타’로 대체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영화가 우리나라 외화 사상 유례 없이 실제 상영 전 자막판과 더빙판에 대한 네티즌들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더빙판으로만 극장에서 상영을 했다는 점이다. 배급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sup>1)</sup> 더빙이 관객에게 우리나라 영화에 버금가는 이해의 용이성과 재미를 더 해 주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홍보되었다.

<빨간모자의 진실>은 네 명의 캐릭터에 정확히 매칭되는 국내 배우를 보이스 더빙으로 캐스팅하여 배우들의 익숙한 목소리로 친근감을 형성시키는 것은 물론, 감상의 흐름을 끊는 자막 읽기 대신 편안한 관람의 시간을 선사하게 되었다. 이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때 다소 장벽이 되

1)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빨간모자의 진실’ 100% 더빙판 배급 확정.” 뉴스와이어. 2006. 04.06 <http://dbm386.egloos.com/1758431>.

있던 요소들을 재치있게 변화시켜 관객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빙판 자체의 수준을 높이고자 국내의 코미디 감각과 유행어, 국내 정서를 감안한 트렌디한 대사들로 내용을 구성해 기존의 할리우드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해 영화를 100% 즐기 힘들었던 상황 자체를 원천봉쇄 하였다.

그러나 번역학자에게 이 영화의 더빙은 결코 ‘가벼운 마음’의 ‘편안한 관람’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더빙 내용이 원 영화 대사를 지나치게 자국화하여 번역의 충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관객이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면 번안이라는 이름으로 언어내 번역이 합리화될 수 있으나 언어간 번역인 ST-TT 상호 텍스트 비교에서는 ST의 원 의미가 지나치게 과장, 왜곡되고 있다. 물론 그 목적이 위에서 지적하듯 ‘코미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코미디 장르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입 애니메이션 번역에서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언론 또한 <빨간모자의 진실>의 흥행 성공 요인으로 100% 더빙이라는 전례 없는 전략이 우리 관객에게 재미를 더 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우리말 더빙 총감독자 또한 자막에 비해 더빙이 더욱 관람을 편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준 요소로 지적하며 “더빙은 단순한 보조작업이 아니라 재창조 작업”을 강조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 영화의 우리말 더빙 번역에서 웃음 유발 요소와 자국화 방법으로 유행어, 특히 개그맨들의 표현과 몸짓 그리고 비속어가 남용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영화에서 ‘일용엄니’ 특유의 재미있는 목소리를 가진, 할머니 역의 김수미와 지나치게 말을 빨리하는 다람쥐 역을 맡은 노홍철의 화법은 문제가 없으나 형사 개구리 ‘폴짝이’ 대사에 지나치게 목소리 연기를 한 임하룡을 강조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폴짝이는 없고 아예 캐릭터를 임하룡으로 바꾸어 대화를 나누는 캐릭터는 “임하룡 유행어로 할까요? 이것 쓱스럽구만.”이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폴짝이는 “언제적 유행어인데 ...”라고 답한다.

이 영화에서 할머니가 TV를 보기 위해 전화를 끊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부분도 당시 유행하던 우리나라 시트콤 ‘프란체스카’로 바꾸는 것이 문제인데, 더

2) 어수용 기자. “애니에 우리말 입히니 더 재밌대요.”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6.05.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04/200605047056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04/2006050470565.html)

욱 심각한 것은 우리말 더빙이 유행어와 비속어로 일관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비롯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등급으로 판정된 <마다가스카 *Madagascar*>만 보더라도, 주인공 목소리 연기를 담당한 영화배우 송강호의 우리말을 비롯해 등장 동물 캐릭터들의 더빙 우리말 사용 문제점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이 영화에는 단순히 동물들이 나오는 코미디 장르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조폭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신호발이 영 땡이거든... 입 좀 닥쳐... 열나게 좀 해봐... 완전 또라이 집단이구먼...” 등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고, 앞에서 인용한 임하룡의 유행어는 물론 캐릭터들이 노홍철의 “그냥 가는거야”를 비롯해 “꺄꺄꺄근하면 손을 들라... 나 잡아봐라... 빠져 봅시다!” 등 당시 유행하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개그맨 흉내를 내고 있다.

## 2-2 자막 분석

영화 화면에서 나오는 음성을 문자 캡션으로 처리하여 청각장애자들의 이해를 돕는 텍스트 변환 기술(Teletext technology)은 영상이라는 매체와 문자라는 매체가 다르긴 하지만 화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소리를 자동으로 자막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호간 번역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내 번역이다. 이에 비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직접 대사와 나레이션을 포함한 소리를 다른 언어로 옮긴다면 이는 언어간 번역이 된다. 기호간 번역으로서의 영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원 영화 언어와 다른 자막은 시각적 이미지와 문자 언어 기호와 융합된 것으로 이미지(시간적)와 글자 자수(공간적)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영상번역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한 언어간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에 나타난 영어 사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말에 침투해 있는 외국어 사용의 심각한 문제는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으나 번역에서 그것이 문제로 분석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우리말에 번역사의 언어 습관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언어 습관은 곧 우리말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그 변화란 유감스럽게도 앞에서 제시한 비속어, 신조 유행어의 범람 및 외국어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마다가스카>에서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다른 영상 번역에서도 “좋다”라는 의미로 “죽여준다”나 “끝내준다”라고 하거나, 얼짱, 얼꿩, 짹짹빵이런 신조 유행어는 쉽게 발견되는 단어이다.

영어와 한국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 번역이어야 할 우리말 자막에서 사실 같은 외국어 사용이 눈에 띄이게 늘어나면서 번역 비평가들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감지할 정도로 외국어가 남용되고 있다. 영어 대사를 우리말로 옮긴 자막에는 원 대사의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오히려 우리말 대신 또 다른 대체 영어 단어로 등가 처리할 정도로 외국어 남용이 심각해졌다.

영화 <애니씽 엘스 *Anything Else*>의 자막 번역자는 “Yes, good news.”를 우리말 자막으로 “응, 굿 뉴스지.”라고 그대로 옮긴 것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별 의미 없이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디 알렌이 감독한 이 영화는 60대와 20대의 코미디 작가가 주인공인 코미디 장르 영화이다. 오늘날 ‘희극’이라는 표현 대신 ‘코미디’라는 외국어가 하나의 외래어로 정착한 이 장르의 이 영화에서 코미디, 개그, 조크라는 서로 다른 영어로 우리말 자막 처리된다.

ST2: great **jokes** for wisdom

TT2: 개그는 일품이지

ST3: You know a great wisdom in **jokes**.

TT3: 코미디에는 심오한 조크가 담겼어.

ST4: There is an old **joke** about a fighter in the ring.

TT4: 프로복서에 관한 개그지.

ST5: We both are **comedy** writers.

ST5: (우리 모두) 개그쓰면서.

ST6: You are a wonderful writer of **humor**

TT6: 당신은 훌륭한 코미디 작가야.

영어 joke는 우리말에 ‘우스갯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코미디는 ‘희극’을 뜻하

는 장르의 명칭이다. 그런데 이들 예문에서 보듯이 번역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언어 습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외국어를 쓰는 경향이 있어 comedy조차도 코미디가 아닌 개그라고 옮기고 ‘조크’나 ‘유머’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또한 다른 외국어로 대치함으로써 외국어를 정확한 의미에 관계없이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 한 번 이 영화에서 ‘조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a bathroom joke’를 ‘화장실 조크’라고 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도 ‘음담패설’이라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말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는 비속어로 “돌았다”라고 표현을 한다.

ST7: My mind is somewhere else.

TT7: 정신이 나갔나봐.

ST8: You are so **crazy**.

TT8: 정신을 어디다 뒀어.

ST9: She is **crazy**.

TT9: 그 여자 돌았어.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우리말 표현도 코미디 영화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앞에서 지적한 비속어 남용은 물론 서로 다른 외국어로 자막 번역을 하고 있다. ‘a deranged being’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a mad man’을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말로 제대로 풀이하지만 역시 같은 표현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이코’로 표현하였다.

ST10: He is **nuts**

TT10: 그 사람 사이코야.

ST11: Dobel is a **lunatic**.

TT11: 도벨은 사이코야.

### 3. 결론

지금까지 분석 대상 외화의 우리말 더빙과 자막 예들을 통해 번역자의 언어 사용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번역자의 언어 습관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라는 언어 사용자 구성 집단의 언어 사용 방식을 반영한다. 더빙에서는 언어 내 번역이라는 차원에서 자막에 비해 관객의 이해와 편리함을 도모하고 재미를 더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재미와 웃음이 주 목적인 코미디 장르 AVT에서 지나치게 유행어와 비속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빨간모자의 진실>에서 살펴보았듯이 관객에게 친밀감을 주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연예인들의 목소리 캐스팅이 가져오는 왜곡된 자국화와 유행어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외화 상영에서 기존의 자막 대 더빙 비율이 8:2였던 것과는 다르게 100퍼센트 더빙판으로 상영한 것이 이 영화의 성공적인 전략으로 분석되어 차후 이러한 사례와 그에 따라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더빙 제작은 자막 제작에 비해 비용이 더욱 많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유명 연예인들을 목소리 배우로 이용하는 데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여전히 자막이 압도적으로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빨간모자의 진실>이 선례를 남긴 만큼 더빙판 기획과정에서 같은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 또한 크다. 그 결과 영화 배급사, 영상 번역가, 영상 번역 프로젝트 담당자/회사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코미디 장르와 더빙 흥행 전략에서 드러난 우리말 순화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막에서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언어간 번역에서 나타난 우리말 속의 외국어 남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반영하면서 같이 역동적으로 변모해가는 언어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점차 외국어 남용이 우리말에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자막에도 우리말로 옮기는 노력 대신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외국어로 대치하는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말 사용 실태를 볼 수 있었다. 우리말 순화차원을 넘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언어간 번역으로서의 자막에서 외국어가 범람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말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영상 번역의 우리말 사용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야콥슨의 번역 정의 중 언어간 번역과 언어내 번역을 위주로 영화들을 분석하였다. 광범위한 야콥슨의 번역 개념은 후속 연구를 통해 언어간 번역에 주로 국한되는 영상 번역의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이는 ST-TT의 상호 텍스트성을 서로 다른 기호간의 상호 텍스트성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사학과 번역학을 연계한다면 기호학 번역으로서의 영화에서 소설과 영화 상호 텍스트를 비교하여 소설이 영화로 각색되면서 어떻게 그 서사 장치와 기법이 바뀌는지에 대해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잘 보여 주듯 영어로 된 인쇄물 소설과 영화가 각각 모두 우리말로 번역된 결과물이 있을 때 이들 텍스트들 사이의 상호 텍스트들을 비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번역학의 상호 텍스트로 범위를 좁힌다면,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 수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자막대신 더빙을 선호함으로써 파생되는 우리말 번역 실태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 동일한 ST에 대해 상이한 두 개의 TT, 즉 자막과 더빙을 비교하는 것도 연구 가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aker, Mona. 1998.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usan. 2003.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Gottlieb, Henrik. 1998. "Subtitling," in Baker, Mona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44-248.
- Jakobson, Roman.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euben A. Brower (ed) *On Translation*. Massachusetts: Havard UP. 232-239.
- Karamitroglou, F.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the Investigation of Norms in Audiovisual Translation: The Choice between Subtitling and Revoicing in Greece*. Amsterdam and Atlanta: Rodopi.
- O,Connell. 1998. "Choices and Constraints in Screen Translation," in Dorothy

- Kenny & Jennifer Pearson (eds) *Unity in Diversity: Current Trends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Shuttleworth, Mark & Moira Cowie.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Steiner, George. 1975.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London/Oxford: Oxford UP.
- 어수웅 기자. “애니에 우리말 입히니 더 재밌대요.”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6.05.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04/200605047056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04/2006050470565.html)
-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빨간모자의 진실’ 100% 더빙판 배급 확정.”  
뉴스와이어. 2006. 04.06 <http://dbm386.egloos.com/1758431>.

주요 분석 대상 영화

- Hoodwinked*. 2005. The Weinstein Company
- Madagascar*. 2005. Dream Works.
- Anything Else*. 2003. Dream Works.

[Abstract]

## Roman Jakobson's Translation Theory and AVT with focus on Korean Language Habits

Ryu, Hyunju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Korean language uses in audiovisual translation or AVT with Roman Jakobson's definitions of translation. While general translation studies mainly concern interlinguistic translation, AVT has intralinguistic and intersemiotic perspectives as well, in subtitling and dubbing and film adaptation of a novel, respectively.

In Korea, it is noteworthy that dubbing has been slowly increasing recently either for a star-marketing strategy or TV broadcasting. *Hoodwinked!* was unprecedentedly released in Korea as 100% dubbing version with 4 Korean celebrities(two actresses and two comedians) cast for voice. This contributed to a success of the box office yet exercising distorted domestication as it foregrounded the celebrities by overusing their trendy words and tones which were in vogue among Korean people.

Along with this mode of vogue words, rude or offensive words are also rampant in a comedy genre. A Korean version of *Madagascar* allowed for all age group, meaning including children, has full of these language habits. *Anything Else* shows another problem in comedy AVT: too much English substitutes for Korean equivalents in the interlinguistic translation.

The rationale behind these wrong Korean habits is problematic that they add fun and friendliness to help audience enjoy comedies more comfortably.

- ▶ Key Words: Roman Jakobson, film translation, audiovisual translation, dubbing, subtitling, Korean language habits

류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

juruk2@pufs.ac.kr

관심분야: 통역·번역학, 비평이론, 서사학

논문투고일: 2008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